

18세 218일... 이강인 라리가 데뷔골

3득점 모두 관여 '만점 활약'

팀 역대 외국인 최연소 득점 기록

한국인으로 박주영 이후 두번째

발렌시아, 헤타페전 3-3 무승부

한국 축구의 미래 이강인(발렌시아)이 그토록 기다리던 리그 데뷔골을 넣었다.

알베르트 셀라데스 감독이 이끄는 발렌시아가 26일 메스타야 경기장에서 열린 헤타페와 2019-2020 프리메라리가 6라운드 홈 경기에서 2골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3-3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날 발렌시아는 리그 초반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이강인의 첫 골은 위안을 삼기 충분했다. 팀의 무승부로 데뷔골의 빛이 바랬지만 이강인은 1골을 넣었고, 2골에 관여하는 등 만점 활약을 펼쳤다.

이강인은 이날 골로 2012-2013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아스널에서 임대 이적한 셀타 비고에서 뛴 박주영(FC서울)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두 번째로 프리메라리가에서 득점을 기록한 선수가 됐다.

그동안 레알소시에다드와 누만시안에서 뛴 이천수, 라싱 산탄데르 이호진, 알메리아 김영규 등 많은 한국선수들이 프리메라리가 문을 두드렸지만 모두 실패했다.

한때 제2의 메시로 모두가 기대했던 이승우는 바르셀로나 A팀 승격에 실패해 이탈리아(헬라스 베로나)로 이적했고, 지금은 벨기에(신트트라위던)에서 뛰고 있다.

제2의 사비로 불린 백승호도 바르셀로나B에서 A팀 승격에 실패, 같은 리그 소속 지로나로 이적했다. 백승호는 최근 독일 분데스리가2의 다름슈타트로 동지를 틀었다.

바르셀로나 유스팀에서 가장 촉망받던 이승우와 백승호조차 치열한 프리메라리가에서 살아남지 못했다. 하지만 이강인은 선배들과 달랐다.

2011년 발렌시아 아카데미에 입단한 이강인은 알레빈, 인판틸, 카데테 후베닐 등 스페인 시스템에 따라 단계별 유소년팀을 거쳤다. 축구 실력을 인정받은 이강인 팀을 월반하며 2살 이상 차이 나는 선수들과 뛰었고, 지난 시즌에는 꿈에 그리던 발렌시아 A팀로 승격했다.

발렌시아 최고 유망주였던 이강인은 지난 6월 폴란드 U-20 월드컵에서 골든볼을 수상했지만 마르셀리노 토랄 감독 밑에서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기회가 찾아왔다.

이강인 등 유망주 출전과 선수 영입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구단주 피터립과 잡음을 일으킨 마르셀



이강인(발렌시아)이 26일 스페인 발렌시아의 메스타야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리메라리가 헤타페와의 홈경기에서 데뷔골을 터뜨린 뒤 포효하고 있다. /연합뉴스

리노 토랄 감독이 경질됐다. 새로운 알베르트 셀라데스 감독 부임 후 이강인이 조금씩 중용됐다. 시작은 교체였지만, 4경기 연속 출전했다. 결국 첫 선발 출장한 26일 사고를 쳤다.

헤타페전에서 4-4-2 포메이션의 왼쪽 윙어로 출전한 이강인은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고 뛰었다.

2-1로 앞선 전반 39분 드리블 돌파로 수비를 따돌린 공격수 로드리고 모레노가 이강인을 향해 땅

볼 크로스를 올렸다. 이강인이 이를 지체없이 오른 발 솟으로 연결해 헤타페 골문을 열었다. 이강인은 자신을 믿어준 셀라데스 감독에 골로 보답했다.

이골로 이강인은 발렌시아 구단 역사에도 한 획을 그었다.

이강인은 발렌시아 소속으로 프리메라리가에서 골을 넣은 최초의 아시아 선수이자 최연소 외국인 득점자로 이름을 올렸다.

18세 218일에 골을 넣은 이강인은 리버풀과 유벤투스 등에서 활약한 모모 시소코(18세 326일)의 기록을 경신하고, 팀 내 최연소 외국인 득점자가 됐다

발렌시아에 따르면 이강인은 역대 프리메라리가에서 득점한 발렌시아 선수 중 세 번째로 나이가 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강인보다 어린 선수는 후안 메나(17세 36일) 페르난도 고메스(18세 200일)뿐이다.

이강인은 지난 1월 셀타 비고전와의 리그전에서 데뷔골을 기록한 2000년생의 기대주이자 경쟁 상대인 페란 토레스도 제쳤다.

이날 축구통계전문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은 이강인에게 평점(7.27)을 부여했다. 멀티골을 기록한 막시 고메스(8.07)에 이어 팀에서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이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속제 쌓인 스토브리그... KIA 진짜 시즌 지금부터



내일 LG전 시즌 마감...내년 시즌 밑그림 그리기 새 감독 선임·FA 자격 안치홍·김선빈 잔류 '관심' 구단 - 선수단 쇄신·외국인 선수 교체 등 산적

KIA 타이거즈의 2019시즌이 막을 내린다. 경기는 끝나지만 KIA의 진짜 시즌은 이제부터다.

KIA는 오는 28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LG 트윈스를 상대로 2019시즌 최종전을 치른다.

시즌 내내 '가을 잔치'와는 거리가 멀었던 KIA는 순위 싸움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스토브리그를 뜨겁게 달궜 팀으로 꼽힌다.

시즌 종료와 함께 KIA에는 처리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일단 위기에 빠질 팀의 지휘봉을 들게 될 새로운 사령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IA의 V11을 지휘한 '우승 감독' 김기태 감독이 지난 5월 성적 부진 등의 이유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올 시즌 KIA는 감독 대행체제로 꾸려왔다.

김 전 감독 사퇴 직후부터 아이들의 치열한 몰입 작업이 전개됐고, 최근에는 구체적인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최종 1인의 이름은 예측 불가능하다. 모기업의 의중이 결정적인 만큼 타이거즈 차기 감독은 안갯속에 가려져 있다.

김선빈과 안치홍도 뜨거운 이름이다. 올 시즌을 끝으로 두 선수는 FA(자유계약) 시장에 나오게 됐다.

지난해 뜨거웠던 기세와 달리 두 사람 모두 올 시즌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을 내면서 1년 만에 FA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하지만 두 사람은 불안한 내야 고민에 빠진 팀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자원

이다. KIA에도 두 선수의 이름은 목격하다.

야수 프랜차이즈가 귀한 타이거즈에서 두 사람은 KIA팬의 많은 사랑을 받는 상징적인 선수다. 또 올 시즌 박찬호라는 히트 상품이 탄생했지만 KIA 내야 역시 불확실함이 더 크다.

특히 안치홍은 올 시즌 공-수에서 진한 아쉬움을 남겼지만 입단 이후 꾸준한 성적을 내온 만큼, 내년 시즌 반등 가능성도 있다.

시즌이 끝나면 전체적인 분위기 쇄신도 필요하다.

KIA는 2017년 우승 이후 타이거즈 역사상 첫 선수 출신 단장을 앞세워 왕조 재건에 나섰다. 하지만 '조계현 단장 체제'는 예상과 달리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

선수 출신으로 구단과 선수단을 아우르는 소통과 리더십으로 '하나의 팀'을 기대했지만 조 단장은 '임창용 방출 논란'의 중심에 서고 말았다. 기용과 통보 과정에서 소통 부재를 노출했고, 이로 인한 논란과 내부 갈등은 올 시즌에도 KIA에 악영향을 미쳤다.

또 신인-육성 선수 영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조 단장은 올 시즌 외국인 선수를 놓고도 승부수를 던졌다. 세 외국인 선수를 전면 교체했지만 역시 결과는 좋지 못했다.

KIA의 올 시즌 성적을 좌우할 키로 꼽혔던 외국인 선수들은 올 시즌 첫 교체 선수로 온 터커를 제외



안치홍 김선빈

하고 모두 낙제점을 받았다.

현장의 사령탑이 쇄신을 위해 스스로 물러났지만 내-외부를 아울러야 할 구단의 사령탑은 위기 타개책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확고한 방향을 제시하지도 못했다.

KIA의 2019시즌은 실패로 끝났다. 실패가 실패로만 끝나면 안 된다.

올 시즌 노출된 선수단과 구단의 전체적인 문제점을 돌아보고, '팀워크'로 함께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천군만마' 펠리페 컴백

28일만의 복귀...광주 FC, 내일 홈에서 서울이랜드 상대 승점 사냥



K리그2의 득점 1위 펠리페가 광주FC의 공격 전면에 다시 나선다.

광주가 28일 오후 5시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서울이랜드 FC와 2019 K리그2 30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앞선 라운드 2위 부산과의 원정경기에서 팽팽한 승부 끝에 아쉽게 2-3으로 지면서, 부산의 추격을 따돌리는 데 실패했다.

승점 5점 차에서 '우승 전쟁'을 이어가게 됐지만 광주는 앞선 승부에서 저력과 의지를 보여줬다.

비가 내리는 늦은 날씨에서 치러진 경기에서 광주는 전반전 연달아 두 골을 내주며 위기를 맞았다. 하청요의 득점이 비디오 판독 결과 취소되기도 하는 등 일방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던 경기였지만, 광주는 후반전 2-2까지 추격을 하면서 부산을 압박했다.

아쉬웠던 결과지만 1위 질주 이유를 보여준 광주는 다이렉트 승격을 위해 다시 승점 사냥을 시작한다.

광주는 서울이랜드에 이어 내달 1일 안산과 홈 2연전을 치른다. 편안한 안방에서 연승을 달리면서 다이렉트 승격의 유리한 고지에 서겠다는 각오다.

먼저 광주는 이번 경기를 통해서 정규리그 최다승 기록 경신에 도전한다.

광주는 지난 2013년 16승이라는 구단 최다승을 만들었다. 광주는 올 시즌 16승 10무 3패를 기록하고 있다.

최다승 기록 중심에 펠리페가 선다. 펠리페는 올 시즌 16골을 넣으며 리그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 광주 공격의 핵심이다. 또 연계플레이, 공중볼 장악 등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퇴장과 징계로 세 경기를 쉬 펠리페는 휴식과 훈련을 통해 컨디션을 100% 끌어올리고, 출격 준비를 끝냈다.

팀 최다승은 물론 득점 1위를 위해서도 펠리페의 골이 필요하다.

펠리페가 경기에 나서지 못한 사이 수원FC 치솟(14골)과 FC안양 조규성(13골)이 바짝 추격을 해왔다.

이번 경기에 최근 맹활약을 펼친 윌리안이 경고 누적으로 출장하지 못하지만 펠리페가 빠진 틈을 완벽하게 메워준 김주공과 하청요, 임민혁 등은 견제하다.

특히 신인 김주공은 앞선 부산전에서 프로 데뷔골은 물론 도움까지 기록하면서 29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다.

광주는 올 시즌 서울이랜드와의 맞대결에서 7득점 1실점으로 3전 전승을 기록하는 등 무패행진 중이다.

다양해진 공격 옵션과 돌아온 펠리페를 더해 4전 전승으로 시즌 맞대결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쿠타뉴(8골), 알렉스(6골), 두아르테(5골)로 이어지는 '삼각편대'를 주의해야 한다.

광주가 서울이랜드를 꺾고 구단 최다승을 이루고, 승격을 향해 한발 더 나아가길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